

전두환을 향한 '눈총'... 5·18 발포명령자 '쏠전공공'

국방부 5·18진상규명단이 밝혀야 할 3대 과제

- ① 도청 앞 집단발포명령 - 증인 인물·문서 찾아내야
- ② 헬기 기총소사 - 조종사·기관총 사수·명령자 누구
- ③ 행방불명자 - 정확한 숫자 확인·암매장지 발굴을

정부가 5·18진상규명에 적극 나섬에 따라 '집단발포 명령자' 등 37년 동안 묻혀있던 '5월 의혹'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군부가 자행한 광주학살을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와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이다. 국방부가 보유한 자료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디까지 진상이 규명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첫 손 꼽는 진상규명 현안은 발포 명령자다. 국방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조사해야 하는 사항은 지난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계엄군 집단발포 명령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다.

5·18 당시 2군사령관이었던 진중채 장군은 지난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이부영 검사실에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 전두환·노태우 등이 광주 비행장에 따로 따로 내려와서 전교사사령관, 505보안부대장을 만나고 보다는 사실을 2군사령부 참모부에서 고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5·18 당시 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대령은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광주에 방문했다"면서 "1980년 5월 26일 오전 10시30분~11시경 광주 공군 비행장에 전두환 사령관이 와 있는데, (전교)사령부(계엄사 광주전남본소)에 갈지 모르니 왕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비행장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발포 명령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꼽히고 있지만 본인은 '광주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집단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할 수 있는 핵심인물이나 문건을 밝혀내야 한다.

'헬기기총소사 명령자'도 규명돼야 한다. 전일빌딩 북원과정에서 탄흔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 나왔다. 고(故) 조비오 신부 등이 주장했던 헬기 사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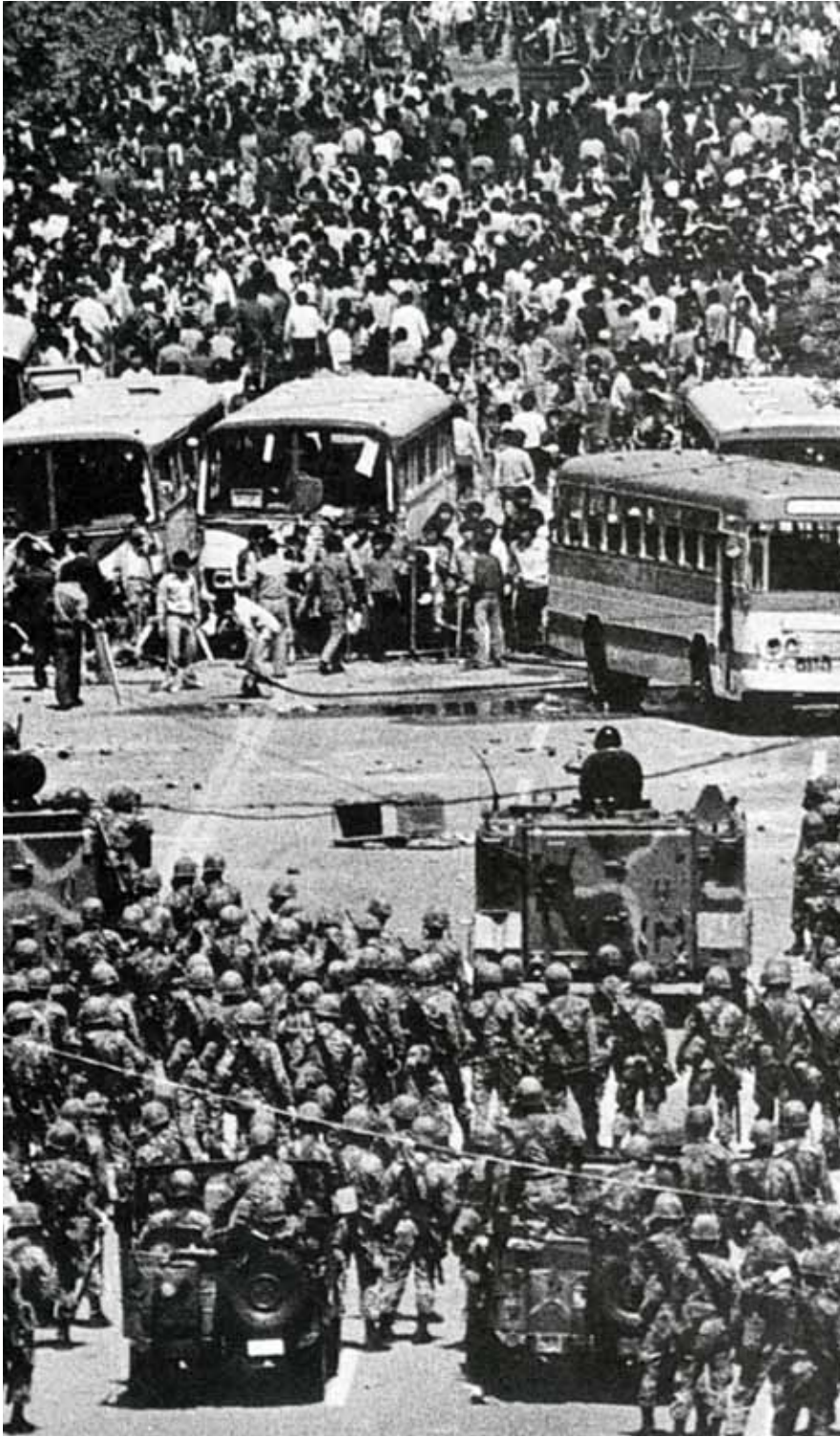
지난 6월 5·18단체와 유가족 등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와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인용 결정을 내리며 5·18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도 헬기 사격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누가 헬기를 조종했고, 누가 기관총을 쏘았으며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

5·18 당시 사라진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꼭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시에 따르면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시민들의 숫자는 441명이다. 광주시는 관련 증거가 뚜렷한 75명만 행방불명자로 인정했다. 현재 5·18민주묘지에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주인 없는 '가묘' 67개가 세워져 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붙잡혀 광주교도소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시민들은 "군인들이 당시 교도소에서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얼굴 등을 촬영했다. 분명히 사진 사진은 물론 사진 처리에 관한 문서가 군에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매장지에 대해서는 5·18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북본소가 있던 광주시 광산구 송정리 인근 하천변이나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 11공수부대 주둔지라는 제보가 있었지만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집단발포 1시간 전 도청 앞 1980년 5월 21일 낮 12시께 광주시민들과 11공수여단이 도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 시민들은 불과 한시간 후 집단발포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투기로 광주에 폭탄 투하?

5·18 당시 조종사 증인 "500파운드 폭탄 장착 출격 준비" 미국 DIA 비밀문서엔 "베트남전 처럼 광주시민들 학살"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는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이 새롭게 제기됐다. 1980년대 광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아놀드 피터슨은 1994년 펴낸 책 '5·18 광주 사태'에서 "미군 하사로부터 '한국 공군이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관련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80년 광주항쟁 당시 공군 조종사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5·18 사나를 뒤인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며 "'가용비행기는 전부 대기하라'는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는 F-5E/F 전투기 조종사로서 수월 제10 전투비행단 101대에서 근무했다.

편대장(대위)이었던 그는 "전투기에 20mm 기관포를 장착했다. 연습용이 아니고 고성능 기관포였다"고 기억했다. 500파운드짜리 폭탄도 장착했다고 했다.

작전 지역과 관련, 그는 "조종사들은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준비하게 된다. 전체 에어리어(area)가 광주 지역이었던 것은 알았다"며 "구체적으로 광주라는 것을 몰랐지만 비행준비 과정에서 알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무장형태와 관련, "북한과 전투를

대비할 때는 공대공(空對空) 위주로 준비하지 공대지(空對地) 위주로는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과 전투한다고 하면 북한 전투기와 싸움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민에 대한 무자비하고 잔혹한 학살이 베트남전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비밀 문서도 번외 공개됐다. 이 문서는 팀 서커스가 광주에 제공한 것으로 5·18기록관에 보관돼 있으며, 미국 국방정보국이 1980년 6월 11일에 생산해 본국으로 타전한 2급 비밀문서다. 서류에는 '한국인에게 공개 금지(NOT RELEASEBLE TO KOREAN NATIONAL)'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해당 비밀 문서는 복수의 한국군 내부 정보원의 말을 인용해 "(4.19와 같은) 60년대 초반의 유사한 사건에 비해 대응이 훨씬 잔혹했던 것도 그 이전의 선배 장교들과 달리 군 수뇌부들이 베트남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며 "한국군이 점령군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광주시민을 마치 외국인처럼 다뤘다"고 적혀있다.

문서에서 한 정보원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마을인 '미라이'(MY LAI)에 빗대 광주를 '한국의 미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공대지 폭탄투하' 명령자 밝혀라

대책위,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5·18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 및 전남도청 복원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2일 "1980년 5월,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다"는 JTBC 뉴스룸에 전화출연한 공군 조종사 증인과 관련 "헬기사격 발포명령자와 더불어 '공대지 폭탄투하' 지시의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날 입장발표에서 대책위는 "증인 한 마디 한 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고, 치가 떨린다"며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자비한 헬기사격에 이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 했던 계획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월 영령들 그리고 150만 광주시민

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 "오월의 진실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온 국민과 정치권,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와 군은 공군의 폭탄장착 광주 출동 대기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발포 명령 등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5·18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역사왜곡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특별법'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 연내 본회의 통과할 듯

최초 발포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암매장지 발굴 등 5·18 3대 미해결 과제의 규명을 위해선 강력한 조사 내지 수사권을 가진 법률 제정이 핵심이다. 5·18 관련 법안 중 5·18 3대 미해결 과제를 포함한 진상규명에 방점을 둔 법률안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특별법)'이다. 5·18특별법안은 지난 7월 10일 발의된

이후 현재 소관위원회(국방위)에 회부, 계류 중이다. 법안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회를 꾸려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시민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암매장지와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사기간은 2년

(필요시 1년 연장)이며,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비협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여당의 반대가 예상되나 더불어민주당(120석), 국민의당(40석) 모두 5·18진상규명을 수차례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편 5·18 관련 법안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태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김동철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5·18 관련 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 5·18기념식에서 제창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희기자 khh@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가을맞이 여행 & 추석 연휴 가족 · 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8월 24일(목) ~ 10월 9일(월)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7)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특가

8/24(목) ~ 9/21(목) [매주 월, 목요일 출발]

북큐슈 펜션 실속 특가!!
9/7(목), 9/14(목) [단, 2회]
아마가세 온천 별장 2박 499,000원부터
알차게 떠나는 북큐슈 [실속] 599,000원부터

항공 3박4일
북큐슈 4일 599,000원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부터
아마구치 4일 799,000원부터
큐슈·오사카 4일 799,000원부터 [9/18(월) 단, 한번!]

선박+항공 2박3일 [단, 2회!]
9/12(화) 나가사키·군함도 499,000원부터
9/19(화) 북큐슈·벵부·시모노세키 34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 공통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상황에 따라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부터(TAX포함)

기타큐슈 추석연휴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호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6(금) 단, 2회!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최소 4인 이상 예약가능

9/30(토) ~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아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p>다낭·후에·호이안 베트남항공(VN) 17, 11/17(금)~18, 5/18(금) 화출발(3박4일) [실속] 699,000원부터 금출발(3박5일) [실속] 799,000원부터</p>	<p>다낭·후에·호이안 3박5일 티웨이항공(TW) 8/23(수)~10/29(일) 준특급 699,000원부터 특급 799,000원부터</p>
---	---

대만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티웨이항공

실속 599,000원부터
품격 699,000원부터

시엠립(캄보디아) 4박5일

(무안출발)
스카이잉크항공

추석 선착순 한정 특가
9/30(토) [단 1회] 1,249,000원부터

* 날짜와 인원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및 기준, 여행차별 가입(해외여행) : 여권,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가이드, 공항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 전차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쟁력 기업 ◆ 예약시 계약서(예약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입금), 기사/가이드 명사료, 선착순, 각종 비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